

한국의 전통건축

張慶浩

문화재연구소 소장

Reprot / Architectural History of Korea
by Chang, Kyung-Ho

우리나라의 傳統藝術이나 建築도 우리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나타낸다. 특히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空間을 이루는 營造物로서 그 생활환경과 양상에 따라 人爲的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營爲하는 사람의 風俗과 性向등을 잘 나타낸다. 筆者가 여기 韓國建築의 根幹을 時代的으로 記述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중요자료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1. 序

어느나라의 藝術이건 그 나라의 國民性을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傳統藝術이나 建築도 우리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나타낸다. 특히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空間을 이루는 營造物로서 그 생활환경과 양상에 따라 人爲的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營爲하는 사람의 風俗과 性向등을 잘 나타낸다. 筆者가 여기 韓國建築의 根幹을 時代的으로 記述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중요자료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호에서는 序論的인 記述로 우리나라 건축의 特性和 歷史的 背景을 우선 적어본다.

1) 우리나라 傳統建築의 特性

韓國의 傳統建築文化는 東아시아 建築文化圈에 속해 있다. 즉 中國系 建築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아왔지만 일부 海洋的 南方의 建築文化도 影響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외래의 文化를 그대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문화를 우리의 風土와 民族性에 맞게 적응시켜 우리의 독특한 건축문화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담하지도, 왜소하지도 않고 중용의 성격을 갖고있다. 그래서 他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他에 의하여 침범 당하려 하지도 않았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敬畏하며 자연과 연관된 神靈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자연과 連續性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건축을 造營하는 태도 極大하지도 倭小하지도 않으며,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파손시키면서까지 건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려는 태도로 건축을 계획하려 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제도에 얽매인 規範的 Detail 을 반드시 지켜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방종한 기법을 쓴 것도 아니면서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미를 꾀한 것이 우리 전통건축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P.J.Grillo 는 말하기를 「農家の 디자인은 어떤 속임수도 편견도 없으며 특정한 스타일이나 시대에 따른 양식도 없고 그저 진실함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말은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순박성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시대에 따라 어떤 규범적인 양식을 뚜렷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진실성을 항상 존중하여 조화시키므로써 농촌의 村女와 같은 진실함과 소박함 그리고 수줍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에는 永遠性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민가를 공부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금세 알게 될 것인데, 우선 이 지방의 氣像特性으로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을 집 주위에 둘러쌓고

〈柱心包양식〉

〈부석사 무량수전〉(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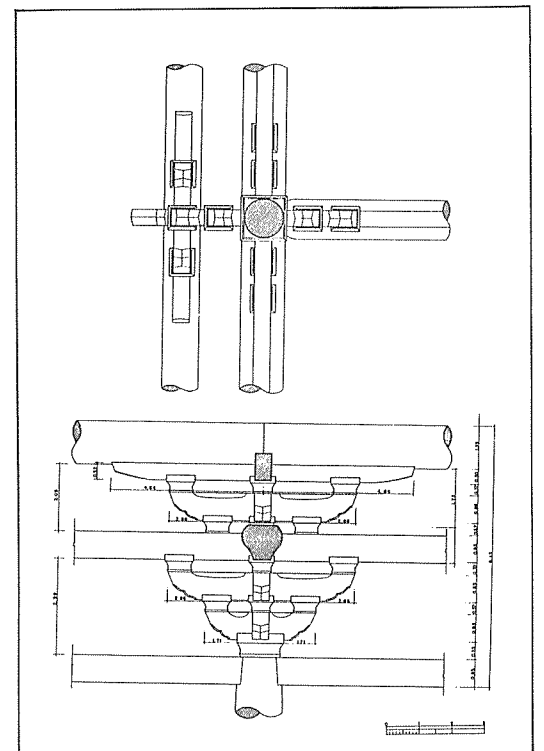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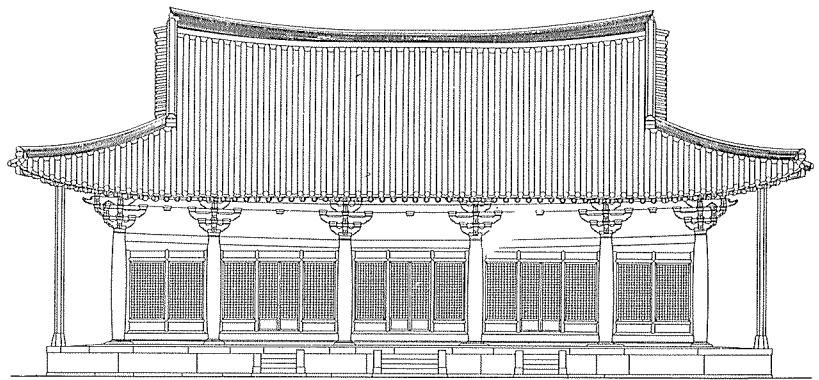
〈부석사 무량수전 정면도〉(中)

〈무량수전 栱包 상세도〉(下)



지붕에는 草屋의 새(풀의 종류)가 날아가지 않게 줄을 井字形으로 엮어서 묶어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붕의 형태와 그 곡선은 마치 한라산의 형태와 같이 낮으막하고 완만한 線을 이루고 있다. 이는 유구한 세월을 견디어 오면서 자연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한라산의 형태가 이 지방에서 가장 견디기 좋은 이상적인 조형이란 데서 기인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鳥類의 형태를, 또 로케트가 바다 속에 頭足類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도 자연의 진실과 영구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민가를 만일 현대식 재료인 슬레이트나 洋기와로 고치고, 지붕을 높이 올리고 주위를 블록 담장으로 둘러싼다면 집이 오래 견디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부조화된 거부반응을 줄 것이다. 필자는 언젠가 現 中央博物館內 북쪽 景福宮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서 宮內의 傳統建物들과 背後의 仁旺山이나 白岳山을 포함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느끼는 건축과 환경의 조화미는 한폭의 그림과 같았고, 반면 남쪽의 南山을 배경으로한 現代빌딩 숲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은 美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다른 느낌이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는 都市計劃을 함에 있어 우리의 뿌리있는 傳統建築美에 대한



“

궁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주요건물배치는 左右대칭을 이루는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조건인 지형에 맞추어 자유롭게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 점이 중국이나 일본의 배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五行思想이 우리 건축에 영향을 준것은 이런 배치뿐만이 아니고 丹青을 彩色함에도 적용되어 색을 五原色으로 분류하여 靑, 赤, 白, 黑, 黃色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이해가 부족하였던가, 아니면 經濟性 추구에 급급하여 都市美에 배려가 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건축은 사용되는 재료도 自然資料로, 풍부한 소나무, 화강암, 진흙 등인데, 이들을 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이들 재료를 그대로 사용, 자연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架構式 木造建築에서 自然礎石이나 基壇 그리고 원래 생긴대로 굽어진 木柱와 보 등에서 이러한 의도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自然石 柱礎와 기둥을 맞추어 세우는 그랭이 기법과 굽어진 기둥과 벽선에 마춤기법, 굽어진 보(衝樑, 우미랑, 과도리 받침보 등)의 架構法이 발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질 좋고 耐久性 좋은 화강석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옛부터 발달되어, 통일신라시대에는 佛國寺나 石窟庵과 같이 우리나라의 石造建築文化의 꽃을 피우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은 神仙思想과 風水思想에 의한 건축을 造營하였다. 따라서 건축을 함에 陰陽說과 五行說을 존중하고 인간의 吉凶禍福을 이 조건에 결부시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자연에 순화되는 건축을 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景福宮은 조선시대의 正宮으로서 북쪽에 白岳山을 背山으로, 주요건물들을 南北軸에

맞추어 남에서부터 光化門과 弘禮門, 永濟橋, 勤政門, 勤政殿, 思政殿, 康寧殿, 交泰殿 등이 놓이고 그 외곽으로 동쪽에 建春門, 서쪽에 迎秋門, 남쪽에 光化門, 북쪽에 神武門을 건조하여 東→春·靑龍, 西→秋·白虎, 南→夏·朱雀, 北→冬·玄武, 中→黃·帝 등을 표현하는 五行思想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安祿宮이나 고려의 滿月臺 등 前代의 宮闕制度의 전통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궁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주요건물배치는 左右 대칭을 이루는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조건인 지형에 맞추어 자유롭게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 점이 중국이나 일본의 배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五行思想이 우리 건축에 영향을 준 것은 이런 배치뿐만이 아니고 丹青을 彩色함에도 적용되어 색을 5原色으로 분류하여 靑, 赤, 白, 黑, 黃色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색의 사용도 중국과 같이 원색을 쓰지 않고 가급적 중간색을 만들어 사용하였거나 몇 段의 빛을 넣어 색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인위적 자극을 피하였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렇게 中庸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전통건축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거대하고 놀랄만한 건축을 세웠으니, 그것은 신라의 皇龍寺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7세기初 건립된 皇龍寺

9層木塔은 목조건물로서, 높이 약 80m 가까운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건축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佛國寺의 紫霞門 앞이나 安養門 앞의 계단인 靑雲, 白雲橋와 蓮花七寶橋 또 그앞에 石築段과 泛影樓 밑에 놓인 擔遮形石柱와 釋迦多寶塔 등의 예를 보면 이것이 신라시대의 건축이지만 현대건축에서 논의되는 Harmony 와 Proportion 의 調和, Rhythm 과 Texture 의 Variation 등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石窟庵에서도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건축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중국건축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중국건축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짜여지지 않은 듯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제된 통일성과 조화를 나타낸다.

2) 歷史的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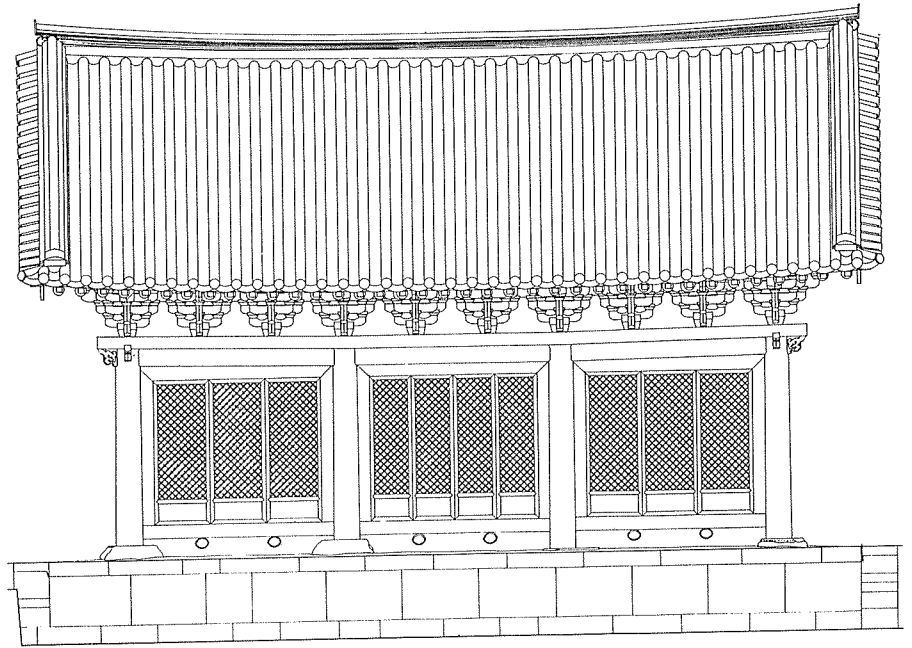
우리나라 민족은 言語學的인 분류에 의하면 Ural Altai 語族에 속하여 原始 Tungus 의 一派이며 Mongoloid 에 속한다. 이들은 고대 중국사에서 東夷系 종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만주일대와 몽고에 살면서 신석기시대에는 한반도에 남하하여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일으킨 것으로

〈多包 양식〉
 〈개심사 대웅전〉〈上〉
 〈개심사 대웅전 정면도〉〈中〉
 〈개심사 대웅전 栱包 상세도〉〈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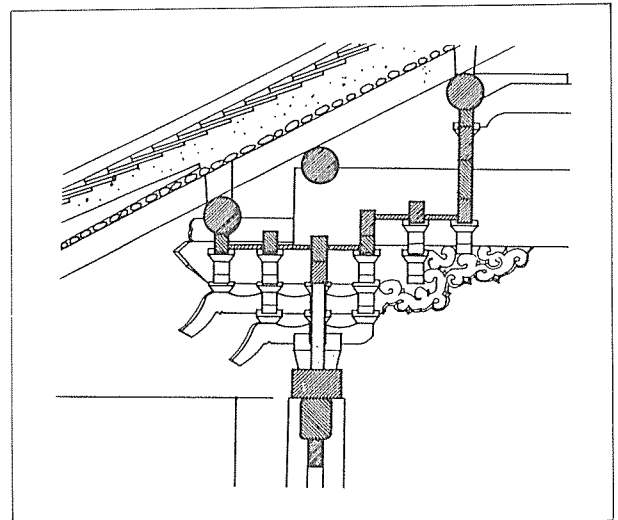


생각된다. 이들은 곰의 Totem 思想을 갖고 Shamanism 의 원시종교를 갖게되어 신령을 숭배했다. 壇君의 신화도 이러한 사상과 관련된 한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문화가 이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기는 곤란하나 이 시대의 주거지인 움집터가 한반도내에서 많이 발굴 조사되어 그 당시의 생활이나 건축수준 등을 研究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新石器文化期는 학자들간에 그 編年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약 4,000년~5,000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과 한강의 연안지역과 동해안지역 등에³⁾ 그 遺蹟이 밝혀졌는데 그 움집터는 소규모의, 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갖고, 집의 바닥이 舊地表下 30cm~100cm 밑을 파서 조성하므로써 외부 기온과 기상에 대처하였다. 이 시기의 건축이란 실내생활이나 휴식공간을 위한 벽체나 지붕을 원시적으로 엮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후 靑銅器時代의 編年은 대체로 기원전 8~9세기에서 前 300년 사이로 보는데 이때의 주거는 같은 움막집의 형식이면서 주거의 평면이 장방형으로 커지고 木造架構法도 발전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목재의 가공사용이 어려웠고 가급적 필요한 형태의 원목을 사용하여 만든 것 같다. 이 住居址의 遺構는 한강유역과



0 10



“

조선후기 17~18세기 이후에는 木構造 栱包이 細部形式도 퇴화되고 부조화된 장식으로 그 품위를 잃어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성을 망각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양식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木造建築의 栱包形式을 분류하여 柱心包, 多包, 翼工包樣式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包作의 짜임새와 配置形式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 특징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양식의 분류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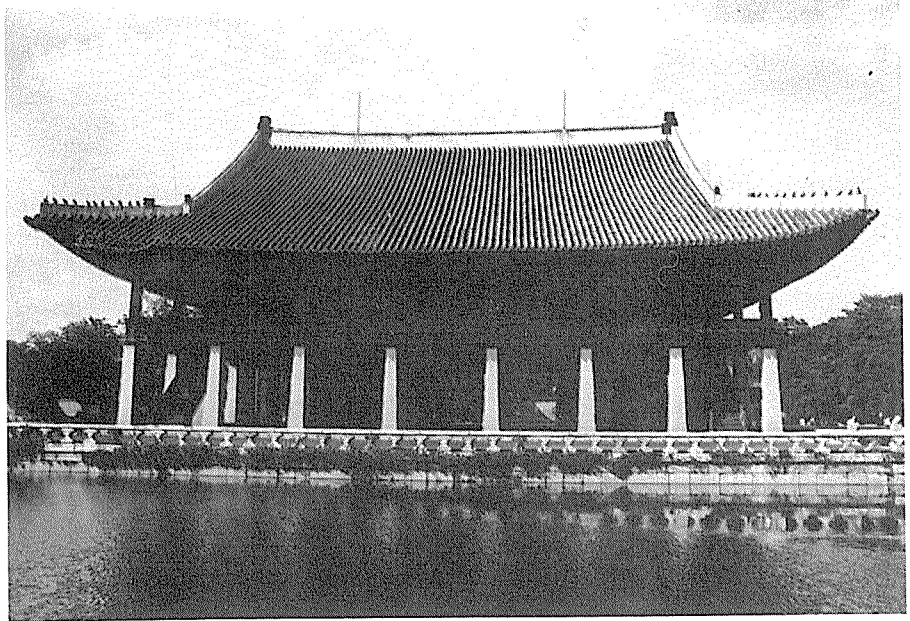
”

소양강,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다.⁴⁾ 우리나라 건축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하여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시대초 3~4세기로 믿어지며 이는 冬壽墓를 비롯하여 고구려 壁畫古墳에 나타난 건축기술등을 근거로 추측되는 것이다. 5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건물기둥에 엔타시스라던가 기둥위의 頭工 등이 사용되었음을 벽화로써 입증되었고 이러한 頭工의 사용은 중국 漢의 건축문화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였다고 믿어진다. 때마침 불교의 전래는 궁궐건축에서만 볼 수 있었던 화려한 건축이 불교요소인 木塔과 塼塔, 石塔 등의 多層構造가 가해지면서 木架構와 塼築, 石造 등의 건축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대규모의 목조건축과 우아한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초기에 궁궐배치를 모방했던 寺刹伽藍은 대칭적 배치와 회랑으로 둘러진 폐쇄공간의 엄격한 형성 등 새로운 건축계획이 발달하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예술적 기교를 충분히 발휘하여 基壇과 石築은 물론 礎石에서 기와에 이르기까지 장식적인 意匠이 가해진다. 즉 불교건축문화는 7세기를 전후하여 전성기를 이루어 고려때까지 명맥을 이어가다가 15세기 조선시대에는 抑佛崇儒政策으로 퇴화되지만, 이때에는 深山幽谷에서

불교문화의 일부나마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찬란하였던 건축문화도 다른 일반건축 문화의 유적과 함께 외적의 침략과 약탈로 초토화되어 그중 인화제로 된 건축구조는 모두 소실되어 알길이 없으니 건축사를 연구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다행히 고려시대의 목조건물 數棟이 남아 있고 삼국시대 石造建造物이 남아있어 그나마도 傍證資料로 연구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건축문화도 일찍부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신라시대의 주택의 규모와 장식, 채색, 재료 등의 規制가 記錄⁵⁾에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보면可喜 짐작이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儒學의 성행으로 文廟, 成均館, 鄉校, 書院 등의 건축이 발전되는데 여기서는 佛寺建築과는 달리 비교적 겸소한 건축을 나타냈다. 平面配置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을 나타냈다. 한편 옛부터 立地의 特性으로 外侵을 대비한 都城, 邑城, 山城의 城廓建築이 發達되었는데, 서울 城廓이나 水原城廓, 南漢山城이 그 예이다. 壬辰倭亂 이후 우리나라의 건축은 사회적 혼란에 의하여 차츰 그 역량을 잃고 건축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과거에 활용 발전시켰던 기술을 계승시킬 능력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조선후기 17~18세기 이후에는

木構造의 栱包나 細部形式도 퇴화되고 부조화된 장식으로 그 품위를 잃어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성을 망각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양식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木造建築의 栱包形式을 분류하여 柱心包, 多包, 翼工樣式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包作의 짜임새와 配置形式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 특징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양식의 분류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浮石寺 無量壽殿이나 鳳停寺 極樂殿과 같이 기둥 상부에서만 包作을 짜는 形式을 柱心包樣式이라 부르고, 서울의 南大門과 같이 기둥의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사이 平枋 위에서도 包作을 짜는, 즉 空間包를 갖는 형식을 多包樣式이라 하고, 조선중기부터 盛行한 柱心包보다도 간소화된, 특수형식의 공포를 짜는 形式을 翼工樣式이라 부른다. 물론 이들 양식은 包作뿐 아니라 架構에서도 약간씩 특징을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양식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現存 資料와 遺構로서는 그 樣式의 發生, 全盛, 退化의 흐름을 밝힐 수 없다. 둘째, 이 當該 木造建物の 架構 및 栱包를 위주로 설명되기 때문에 당대의 건축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셋째, 3양식이 같은 시대에 혼용된

〈翼工系 양식〉
 〈경복궁 경회루〉〈上〉
 〈경회루 정면도〉〈中〉
 〈경회루 拱包 상세도〉〈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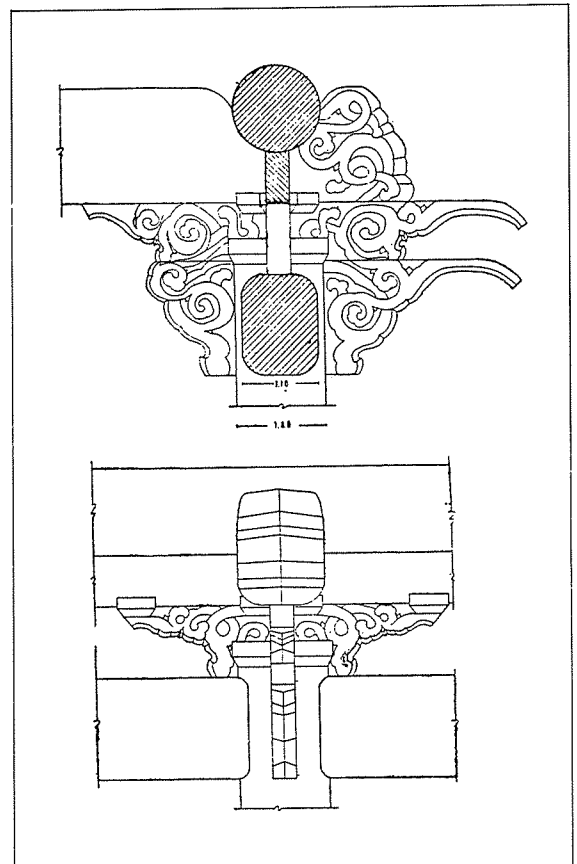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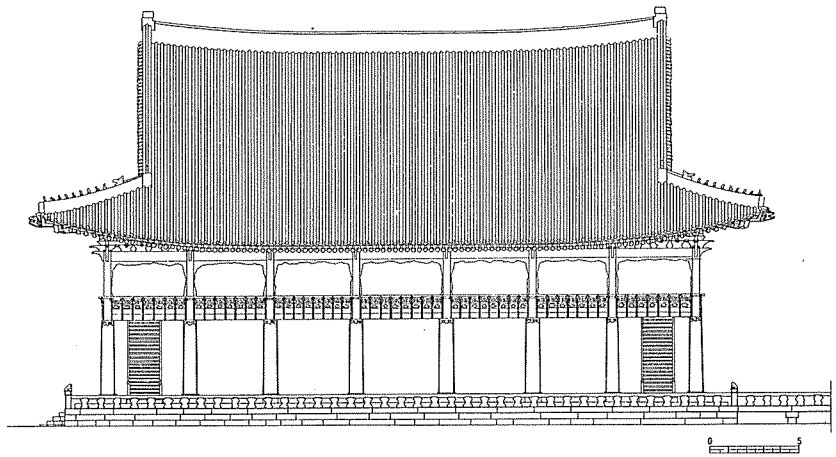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식의 時代的 特性이 없다.

넷째, 三國時代부터 高麗中期까지의 木造建築 實例가 없어 歷史上 長期間의 建築樣式 特性을 알 수 없다.

이상의 문제점은 양식의 분류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築史를 정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러나 樣式分類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어 현재로는 이를 바꿀 도리는 없지만 하나의 건축 형식으로서 인정하고, 장차 충분한 자료가 발견된다면 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略述한 우리의 傳統建築史의 背景에 따라 다음에 繼續하여, 先史時代,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로 나누어 可及的 資料中心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계속》



□ 註

- (1) Paul Jacques Grillo: what is Design?
- (2)丹青에 있어 '빛'은 단청의 착색순위를 밝은색에서부터 차츰 어두운 색으로 色帶를 두어 채색하는 것이다. 같은 色系(帶)를 2빛, 3빛으로 나누어 칠한다.
- (3)金正基 : 新石器時代 竪穴住居址再考,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論叢, 1987.
- (4)金正基 : 우리나라 住宅의 歷史, 住宅公社, 「韓國 住宅의 어제와 오늘」, 1979.
- (5)三國史記 卷第三 志第二 屋舍條.